

[사회]



'도시텃밭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외곽인 북구 장등동에 조성된 텃밭에 모여 땅을 일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귀농 꿈꾸며 '즐거운 호미질'

■광주 장등동 '도시텃밭학교' 가 보니

자녀와 함께 자연속의 삶 체험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3시 광주시 외곽의 북구 장등동 한 텃밭. 30여명의 남녀가 660㎡(200평) 남짓의 텃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다. 그런데 품새가 영 이상하다. 밭을 가는 삽질은 자꾸 허공을 찌르고, 호미질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삽질을 하다 허리를 펴고는 힘에 겨운 듯 신음소리도 연신 내뿜었다. 전형적인 농사꾼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설픈 모양새였다.

〈관련기사 20면〉

이들은 광주농업기술센터와 광주·전남귀농학교가 마련한 도시텃밭학교 수강생들이다. 도시텃밭학교는 귀농을 꿈꾸거나 자연 속의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한 강좌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직접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도 키워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3기 텃밭학교는 오는 4월26일까지 모두 8

차례의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텃밭을 일구는 준비를 도와주게 된다.

"50년 만에 하는 삽질이라 그런지 영 자세가 나오지 않네요. 예전에는 이 정도 크기의 땅은 혼자서 다 갈았었는데."

김중호(71·광주시 남구 월산동) 씨는 "고향인 전북 부안을 떠난 지 50년 만에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정철중(39·북구 용봉동)씨도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면서 광주로 왔었지만 이전 고향인 화순으로 귀향하려 합니다. 땅은 인간을 속이지 않고 주는만큼 되돌려 주는 정직한 곳이야요."

텃밭학교 수강생들이 모두 귀농을 준비하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기 위해

참여한 30대 주부, 어린이 교육을 위해 직접 체험학습에 나선 20대 유치원 선생님이까지 각각씩이다.

주부 홍희정(여·36·서구 금호동)씨는 "학교서도 흙 대신 잔디로, 놀이터에서도 우레탄 등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흙 밟을 일이 사라졌다"며 "농작물이 커가며 수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그것만 큼 좋은 교육이 없을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텃밭을 일군지 한 시간쯤 지난 뒤 "새참 드세요"라는 반가운 소리가 들리자 순식간에 화색이 들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과일이며 음료수, 막걸리와 두부를 나눠 먹으며 자신들이 갈아엎어 새 솥이 도는 땅을 바라보며 서로 뿌듯함도 만끽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해피팜 주말농장 서경훈 농장주는 "흠리는 땅만큼 되돌려 주는 정직한 땅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며 "해마다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고향인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하반기 첫 실시 로스쿨 입시 2개교까지 복수지원 가능

올 하반기 처음 치러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응시생들은 최대 두 학교까지 복수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수시모집은 실시하지 않으며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영역 평가로 대체하고 대학별 논술고사는 따로 보지 않기로 했다.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학별 입학전형 일정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을 위한 각 대학별 전형은 모집시기(군)가 따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다. 첫 번째군은 11월10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째군은 11월17일부터 22일까지 각각 6일간 전형이 실시된다.

각 대학이 모집 시기를 따로 나눠 학생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모두 뽑을 것인지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개군에서 한 대학씩, 최대 2개 대학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같은 군 내에서는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 대학들은 올해 수시모집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형 요소는 8월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 등은 대학별로 정하게 된다. /연남뉴스

검찰 중간 간부 378명 전보 인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경재씨·목포지청장 박민표씨

법무부는 지난 15일 김중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급 37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경재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박민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인사 명단 20면〉

또 광주지검 형사1부장은 위성운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이, 형사2부장은 최석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형사3부장은 양부남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는 등 일선 검찰청 부장급 이상 간부도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를 전원 전보했으며, 법무부와 대검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사법연수원 15~17기를 전진 배치했으며 20기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대검합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는 국민수 수원지검 2차장, 3차장 검사에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권일기자 cki@

휴일 전남 잇단 산불·화재...1명 숨져

휴일인 16일 전남지역에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1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완도군 생일면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ha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앞서 오후 12시30분께 신안군 신의


면 채도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8ha를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낮 12시 20분께 해남군 계곡면 무위리와 장산리 야산에서도 20여분 간격으로 불이 나 모두 3.9ha의 임야를 태우고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전 5시55분께 순천시 서면 화구리 유모(60)씨의 돈사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관리인 재중동모 박모(59)씨가 숨졌다.

불은 돈사 5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돼지 1천여 마리를 소사시킨 뒤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봄내음 가득 3월 17일 (음 2월 10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 조금	3~19℃
주요	구름 조금	3~16℃
포수	구름 조금	7~16℃
수도	구름 조금	4~17℃
대전	구름 조금	2~19℃
대구	구름 조금	1~17℃
부산	구름 조금	1~18℃
인천	구름 조금	3~18℃
서울	구름 조금	1~19℃
경기	구름 조금	1~16℃
충청	구름 조금	1~18℃
전남	구름 조금	1~18℃
전북	구름 조금	2~18℃
경남	구름 조금	-2~19℃
제주	구름 조금	4~14℃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남동풍 파고 0.5~2.0m
목포 밀물 < 11:10 썰물 < 03:41
여수 밀물 < 06:39 썰물 < 12:59

▲해돋이 06:40 ▲해질 18:42 ▲달돋이 14:07 ▲달질 04:01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씨						
최저/최고	5/20	5/19	4/20	4/19	5/18	8/13

담양 용흥사 범종 보물 지정

담양 용흥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됐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 지방유형문화재 제90호 용흥사 범종이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이란 이름으로, 보물(제 1555호)로 승격, 지정됐다.

이 동종에는 순치(順治) 원년(1644년)에 조성됐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종신에 새겨진 인동당초문, 보살상 등 조각미와 문양표현, 비례감 등 전체적인 구조 기술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필성기자 bungy@kwangju.co.kr

예비후보자 명함 돌린 40대 여성 등 2명 적발

광주북부경찰은 16일 오후 4~9시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김모(여·41)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S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150명에게 총선 예비후보자 A 씨의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들은 A 후보 측으로부터 일당 3만원씩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본인 및 배우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등 3명 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종행 기자 gilee@kwangju.co.kr

고속도로 폭설 대란 "35만~60만원씩 배상"

2004년 3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혔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토록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는 하루 동안 49cm의 폭설이 내렸으며,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시작돼 다음날 오전 10시께 91.5km 구간에 9천850여대의 차량과 1만9천여명이 고립됐다. /연남뉴스

광주광역시대학입학원이 복구형으로 신속하면 최고의 사설을 갖추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학편입 No.1

김영대 대학편입학원

222-0088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LINE** 강사

강남 PMS학원 상주강사

가강 5:1

MEET & DEET 수준별 어문과정

40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문수석

본원출신 전국수석

합격률 96.7

광주고시학원

227-500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시군청 ☎361-8111

북구청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대졸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원·부·파·최영아·이·박)

개강 매월초 합격

국비무료

새로운행정고시학원

☎361-8111

☎529-8111